12/01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본문 요합 예약되었 사람 열가나에게 한나와 누는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시이 않았다. 열가나는 에난 성도에 올리가서 여호와에 여해하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품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2페의 목을 주었다 한나를 시기했던 보다나는 그리는 건분시키었다. 괴롭혔다. 한나의 가로네에 들여 기도하기를 만실 자신에게 어둠을 주시면 주닌에 드러겠다고 사원하였다. 여호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라게 이를 사무열을 주셨다. 한나가 사무열이 젖을 잘 때까지 양국한 후에 그를 주난에 드리기 위해 여호에의 집으로 갔다.

다어해석

문깃(4): '제비를 뽑아 나눠진

것, 정당한 몫이란 뜻, 성경에서 는 하나님께 드리 제품 중 제사

로부터 물러받은 유산 등을 가

실정(15):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김정 통하다(15): 숟기고 있던 감정

근심(18) : 해결되지 않은 일 때

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동참(19) 남녀가 잠자리를 같

혹은말을쏟아내다

이하

사무엘상 1장

엘기타이 신로 수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 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 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숩의 현손 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 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 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을 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 데 엘리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 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 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

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⁶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 ⁶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 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적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난나가 그를

적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⁸그의 남편 엥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 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 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 니라

하나와 엠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결 의자

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 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BibleClip

매년 … 실로에 올라가서

용법은 허브리 남자들이 1년에

하고 있다(출 34:23) 그러나 열

가나는 레위 출신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매년 한 번만 제사를 드

했다. 이는 물법 규정을 어기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이스라엘 전 체에 영장이 나타하여 되었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 이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 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 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라이다 하니

30그의 남편 열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전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첫 때 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첫 때기까지 기다리다가 30 첫을 땐 후에 그를 테리고 윤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족부 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50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결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 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나라



Bible Questions

-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상 1:11)
- 한나가 임신하고 낳은 아들은 누구이며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삼상 1:20)
- 하나가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무엇이라 말하며 여호와에 드런습니까? (상상 1:26-28)



∆EIR MOSs Z

4

15